

논단 / 자료

연속간행물 구독업무의 효율화 방안

- 전자자료 구독과 연계하여 -

김 화 택
(수서정리과)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1. 학술지 선정 및 평가 |
| II. 학술지 구독상의 문제 | 2. 학과(주제)별 형평성있는 예산 배정 |
| 1. 학술지 구독종수의 부족 | 3. 전자저널로의 대체에 따른 |
| 2. 구독학술지의 학과(주제)별 형평성 문제 | 4. 분관과의 협력 수서 Archive 정책 |
| 3. 학술지 선정 및 평가기준의 부재 | 5. OAJ(Open Access Journal)의 확충 |
| 4. 전자저널 구독의 문제 | 6. 문헌복사서비스 비용의 지원 |
| III. 효율적인 학술지 구독 방안 | IV. 끝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우선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은 여러 문헌을 통해 검증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論考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글은 본인이 연속간행물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과 연속간행물 수서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평소에 생각해왔던 내용들을 별다른 형식없이 서술코자 하는것이다.

우리도서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내최고의 대학도서관으로 불린다. 또한 실제로도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많은 교수와 학생들은 항상 우리도서관의 자료가 부족하며 원하는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왜일까? 왜 항상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본인은 그 이유를 꼭 자료 부족의 원인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큰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일수도 있는 것 같다. 실제 자료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구독중인 자료의 홍보 부재나 이용자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에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나 이용상의 문제 즉 자료 이용을 위한 적절한 가이드나 검색 경로의 어려움 등이 이용자에게는 자료 부족을 체감하게 하는 더 큰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더불어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즉 이용자의 자료 요구를 경청하거나 부재 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창구의 부족 등이 또한 이러한 불만에 한몫을 더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고 또한 수서 본연의 업무와 조금은 떨어진 느낌이 있어 본 장에서 생략하고, 본인은 수서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통한 수서업무의 효율화방안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II. 학술지 구독상의 문제

1. 학술지 구독종수의 부족

우선 자료 부족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리대학의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학술지의 부족이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ARL 대학의 구독종수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과연 우리대학의 연속간행물 구독종수는 ARL 여러 대학과 비교하여 상당히 부족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ARL 상위권 대학과의 비교는 예산이나 구독 종수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우리도서관과 규모가 별로 차이나지 않는 ARL 중위권 대학과의 비교에서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 1] 도서관 자료 유형별 구독비 현황

	서울대학교			ARL 중위권대학			ARL 상위권대학		
	종수	금액(\$)	비율(%)	종수	금액(\$)	비율(%)	종수	금액(\$)	비율(%)
총자료비		8,273,000	100		8,662,668	100		31,194,924	100
연속간행물	9,670	5,393,000	65.2	29,311	5,904,464	68.1		11,360,265	36.4
단행본	32,527	1,858,000	22.4	35,557	1,789,797	20.0		11,104,116	35.6
기타		1,022,000	12.4		968,407	11.9		8,730,543	28

* ARL Statistics 2004-2005 (Washington, DC: ARL in 2005)

[표 2] 전자저널(DB) 구독비 현황

	예산(\$)		저널종수
	전자저널	전체자료 대비	
서울대학	1,159,000	21.5%	18,654
ARL 평균구독비	1,775,865	22.01%	24,654
ARL 상위구독비	2,481,583	31.98%	68,194

한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대학의 학술지 구독예산이 ARL대학과 비교했을 때 그리 뒤지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독종수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학술지 평균 구독 단가의 차이이다. 미국내 저널 평균 구독 단가는 \$285에 불과하지만 우리대학의 저널 평균 구독단가는 거의 \$800에 육박한다. 즉 우리대학은 동일한 금액으로 미국대학과 비교해 1/3 수준의 학술지도 구입하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이런 학술지 구독 단가 차이는 list price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구독 학술지의 선정상의 문제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연구대학이라면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학술지는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다. 이들 학술지들은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학술지이며, 타 학술지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이며 주로 과학 및 기술 분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대학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이러한 필수 기본적인 학술지를 우선 구독하고나면 사실 다른 학술지를 구독할 여력이 별로 없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학술지를 선정하거나 확충할 기회가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구독하는 학술지를 갱신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일부 고가의 학술지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서관의 부족한 예산이 가장 큰 환경적 문제이며 이것이 미국 대학의 다양한 학술지 구독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한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학술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전자저널 구독 확대를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 외에도 우리의 학술지 구독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 구독 학술지의 학과(주제)별 형평성 문제

Library Journal에 실린 학술지 주제별 가격 분포와 학술지의 주제별 출판 현황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여 지듯이 학술지 주제에 따라 상당한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우리도서관 구독 현황과 대조해보면 <표4>와 같다.

[표 3] 세계 출판물 학술지 발행현황 (Library Journal)

SUBJECT	평균발행종수 (2002-2006)	평균가격\$ (2006)	가격상승(%) 02-06
Agriculture	189	890	41
Anthropology	53	416	39
Art & Architecture	65	185	38
Astronomy	24	1,724	37
Biology	265	1,548	42
Botany	69	1,238	41
Business & Economics	328	746	42
Chemistry	238	3,254	34
Education	109	442	47
Engineering	345	1,756	35
Food Science	18	1,292	44
General Science	72	1,098	36
General Works	74	241	34
Geography	68	984	32
Geology	99	1,323	31
Health Sciences	1,539	1,132	40
History	220	201	52
Language & Literature	319	176	46
Law	79	225	42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51	437	53
Math & Computer Science	210	1,278	30
Military & Naval Science	11	538	56
Music	44	130	35
Philosophy & Religion	141	226	45
Physics	253	2,850	31
Political Science	63	437	52
Psychology	160	516	44
Recreation	18	206	41
Sociology	314	491	48
Technology	181	1,560	35
Zoology	135	1,259	29
	5,754		

* SOURCE: LJ PERIODICALS PRICE SURVEY 2006

[표 4] 서울대 중앙도서관 구독 학술지 주제별 분포도 (2006년 기준)

DDC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합계
종수	62	59	16	122	77	463	341	68	55	53	1,316
%	4.7	4.5	1.2	9.3	5.8	35.2	25.9	5.2	4.2	4.0	100
금액	71,190	25,382	2,983	69,508	18,444	1,159,279	566,134	12,911	6,982	15,000	1,947,813
%	3.7	1.3	0.2	3.6	0.9	59.4	29	0.7	0.4	0.8	100

* 600(응용과학)대 중 의학분야 차지 비율은 종수 93종으로 전체의 27%, 예산은 25%에 해당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지 발행현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학술지 구독 비중 또한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편중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는 학과별 학술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대학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대부분의 학술지는 과학,기술분야의 높은 가격의 학술지에 치우쳐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독종수로 보면 전체의 70%를 초과하며 구독가격으로 보면 전체의 거의 90%에 이른다.

가령 인문대학의 경우 해당 주제분야를 000과 100, 200, 800, 900으로 보고 총 구독종수를 보면 18.6%에 이르며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6.4%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인문대학 분야의 출판량과 출판물 가격을 고려한 전체적인 분배 종수 및 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구성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예술 등의 비과학기술 계통의 학과는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의 약 10%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히 불합리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대학의 중앙도서관과 분관의 구성원 대비 학술지 분배 예산을 통하여 중앙과 분관과의 예산 분배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학술지는 그 성격상 전체 구성원수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실제 학술지를 이용하는 석박사/교수 구성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2006년도 전체 예산 대비 분관별 예산 배정과 학술지 구독종수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이 구성원에 비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과 구독종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치의학의 경우 실제 학술지를 이용하는 석박사 구성원의 비중에 비하여 예산 비중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5] 중앙과 분관 학술지 구독 예산 (2006년 외국학술지)

	중앙	사회	법학	경영	의/치의학	농/수의학	계
예산	2,457,296 (4,264,354)	138,000	110,000	90,000	931,850	238,000	3,965,146 (5,772,204)
비중(%)	62	3.4	2.7	2.3	23.6	6.0	100
학술지종수	1,789 (10,203)	296	337	168	779	226	3,596 (12,009)
비중(%)	49.8	8.2	9.4	4.8	21.6	6.2	100
구성원수	15,924	2,070	1,120	1,167	2,176	2,365	24,822
석박사/교수	7,087	656	506	555	1,494	847	11,145
비중(%)	63.6	5.9	4.5	5.0	13.5	7.5	100

* 중앙도서관의 괄호안 수치는 전자저널을 포함한 수치로서 전자저널은 중앙에서 분관을 포함하여 대표 구독하므로 분관에도 동일하게 분배된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학술지 구독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학술지가 단일 학과가 아닌 여러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한 최근의 학문 연구 동향이나 출판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볼때 어떤 종류의 학술지가 어떤 학과에 소속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학과별로 구성원수만을 기준으로 획일화된 학술지 예산 배정 기준을 따르다보면 학과(부)별 특성 등은 도외시 될 수 있다. 또한 학과별로 학술지 배정 기준을 할당하여 분배하는 것은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법이 되지못한다. 학과마다 재직교수의 수가 다르고 교수마다 전공주제가 상이하기에 모든 교수가 자신의 전공 학술지를 신청한다면 지금의 구독 종수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의 학과별 예산 할당은 결국 학과 내에서 학술지 선정시 일정부분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며 결국은 학술지 선정시의 관심도나 일부 교수의 포기와 같은 희생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 구성원의 수 외에도 주제 분야의 출판량 규모, 출판물의 가격(주제별 가격 차등)에 따른 분배 기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과 같은 인문학의 위기 시대에서 학문의 심각한 불균형을 도서관 장서에서조차 왜곡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예산의 형평성있는 배분을 위하여 최소한 학과별로나라도 학술지 구독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3. 학술지 선정 및 평가 기준의 부재

우리도서관에서 구독하는 학술지는 대부분 교수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학과별로 할당된 학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학술지에 의해 구독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학술지 구독 및 선정기준이 별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 또한 매년 이전에 구독하던 학술지를 갱신하기에 급급한 현실에서 선정기준이란 단어 자체가 사치스러운 느낌마저 주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매년 새롭게 발행되는 학술지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에 꼭 필요한 학술지가 사장되거나 더 이상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의 첨단 학술지의 신청은 해마다 늘어만 간다. 또한 신규 교수에 의한 신규 학술지 신청과 기존에 구독해오던 학술지를 다른 학술지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등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물론 예산이 있다면 위의 문제들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수 있다. 하지만 매년 예산은 전년도의 학술지를 간신히 갱신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교수의 신규 신청 학술지를 운이 좋으면 겨우 몇 종을 추가 구독할 여력 정도이지, 최근 새로이 발행된 첨단 학술지들을 큰 망설임없이 선뜻 구독할 정도는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분명 수서 및 선정기준은 절실히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명분있는 기준에 의한 학술지 선정은 기회를 박탈당한 교수들의 항의에 정당히 답변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매년 예산부족을 핑계로 신규 신청 학술지를 계속 구독 보류하거나, 이전부터 구독해온 학술지이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무조건 구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닐까한다. 비록 예산의 여유가 전혀 없다면 현재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 일지라도 평가 등의 작업을 통하여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다른 학술지로 대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히 구독 중단 하고 새로운 학술지를 구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년 겪고있는 예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일수도 있을것이다.

물론 학술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찌면 불가능한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준수 하지 못하는 것과 기준 자체도 없다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4. 전자저널 구독의 문제

전자저널은 시대적 추세이다. 기존에 인쇄저널을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들은 전자저널의 편리함과 신속한 정보 제공의 매력에 빠져 더 이상 인쇄저널을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국내에 보급된 컨소시엄 형태의 전자저널 구독방식은 적은 예산으로 수많은 학술지를

구독할수 있는 장점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외국계 메이저 출판사들은 패키지화된 전자저널을 국내 컨소시엄 시장에 판매하고 있어 기존의 학술지보다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서너배의 구독효과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자저널 구독이 현실적으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서관의 전자저널 구독 방법은 주로 세가지 유형으로 구독하고 있다. 첫째는 인쇄저널을 구독하면서 전자저널을 동시에 옵션으로 구독하는 방식, 둘째는 인쇄저널을 구독하지 않고 전자저널만을 구독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컨소시엄등을 통하여 패키지형태의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방식이 있다.

첫째 인쇄저널을 구독하면서 전자저널을 동시에 구독하는 경우는 인쇄저널을 구독하면서 추가로 온라인저널을 구독하는 것으로, 이때 추가되는 온라인저널은 유료와 무료 두가지 경우가 있다. 일부 상업적인 출판사와 학회들은 인쇄저널을 구독하면 무료로 온라인저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대학출판사와 학회들은 인쇄저널의 약 10~15%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저널을 제공한다.

[표 6] 온라인 무료제공 출판사와 유료 출판사

무료 제공 출판사	유료 출판사
Amerian Institute of Physics	American Chemical Society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American Psych. Association
Annual Reviews	Blackwell Publishing
Emerald Publis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sevier Publishing	Nature Publishing
Institute of Physics	Oxford University Press
Royal Society of Chemistry	Wiley Publishing
Sage Publishing	
Springer Publishing	
Taylor & Francis	

* Free online 출판사라도 모든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원문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전자저널 only 방식, 이 방식은 인쇄저널 구독에 관계없이 전자저널만을 선택하여 구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독방식은 매년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저널을 구독하지만 계약기간(보통 1년)이 끝나면 유형의 자료를 남길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인쇄저널의

경우 해당 구독연도분의 인쇄본 저널을 주기적으로 납품받아 소장하여 도서관에 구비하게 되지만 전자저널은 무형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남지 않는다. 매년 구독비용을 지불하고 무형의 라이선스만 계약기간동안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도서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도서관처럼 빈약한 자료와 이로 인한 자료의 보존성에 큰 의미를 두고있는 환경에서 전자저널 only 계약방식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계약방식이다. 가령 갑작스런 출판사의 가격인상이나 또는 도서관의 예산 부족으로 재구독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인쇄저널과 달리 지금까지 구독해온 저널에 대한 아무 근거도 남지 않아 곤란을 겪을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출판사에서는 대학에서 구독한 연도에 대한 저널의 아카이브(계속 이용권리)를 보장해주거나 일정액의 접속료만 지불하면 인쇄저널 구독연도분에 대한 접속권한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자저널 only 구독방식은 인쇄저널에 비해 약 15~20% 정도의 가격 절감효과가 있으며 패키지 구독 방식과 달리 도서관에서 필요한 저널만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전향적으로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Package(bundle)형 전자저널 방식, 현재 우리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대부분의 전자저널은 Package형 구독방식이다. 이 방식은 원하는 학술지를 한종씩 선정하여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출판사에서 발행된 전자저널을 package로 구성하여 묶음으로 구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KERIS와 KESLI 등의 기관에서 주축이 되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외국출판사와 협상하여 계약조건을 만든 후 국내대학도서관과 연구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동구매로 구독하고 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적게는 수종에서 많게는 수천종이나 되는 저널을 구독하는 효과와 계약 진행방식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많은 대학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Package형 구독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전자저널 only 방식과 같이 매년 구독료를 지불하고 이용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아카이브를 가질 수 없다. 간혹 구독 당해 기간의 아카이브를 계속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접속권(Access Right)으로 주는 출판사도 있지만 그것도 일정액의 접속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결국 한번 구독을 시작한 자료는 계속 구독하여야 해당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이 방식은 기존에 구독하던 인쇄저널을 계속 구독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이 수반된다. 패키지 방식으로 인한 많은 학술지를 무상으로 볼 수 있는 잇점 때문에 도서관에서 기존의 인쇄저널을 구독 중단할 것을 우려하여 출판사에서 만든 조건이다. 결국 기존에 구독하던 인쇄저널 비용은 그대로 지불하고 추가 전자저널 비용도 일정액을 부가하여야 하는 예산의 부담이 생긴다. 더불어 기관의 수요에 따라 인쇄저널을 중단하거나 다른 저

널로 대체하고 싶어도 특별히 예산 여력이 없는 경우 구독해왔던 인쇄저널을 중단할 수 없으므로 저널 구독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고 할수 있다.

셋째, 자관에서 필요한 저널이 아니지만 패키지 구독 방식에 따라 해당출판사의 모든 저널을 보게 되므로 필요없는 저널을 구독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과 자료 부족으로 허덕이는 국내 대학의 경우 컨소시엄을 통한 구독방식은 탁월한 자료 확충 효과 덕분에 가장 활성화되어있고 여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다.

아래는 우리도서관(중앙도서관)에서 컨소시엄을 통해 구독중인 대표적인 패키지형 저널과 그에 따른 인쇄저널 구독 유지 종수 및 가격이다. 표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도서관(중앙도서관)에서 컨소시엄과 관련하여 계속 구독 유지해야 하는 저널은 791종으로 전체 구독 저널인 1,580종의 약 절반 정도이다. 하지만 구독 유지비용은 전체 저널 구독가격이 \$2,400,000 정도임을 감안할 때 거의 80%에 육박한다.

이는 곧 우리도서관에서 구독하는 학술지 전체 구독가격의 약 80%, 구독종수로는 50% 정도가 매년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구독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구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표 7] 컨소시엄 Package별 서울대도서관 인쇄저널 유지 조건

Package(출판사)명	제공저널	인쇄저널 유지종수	구독가격 (\$)	content fee (온라인비용)	추가비용 (%)
ACS online	37	20	48,556	17,378	35.7
AIP/APS online	41	7	67,550	4,320	6.3
ASCE online	31	18	9,932	1,030	10.3
Blackwell Synergy	736	65	74,501	23,845	32
CUP Journals online	205	29	10,149	4,400	43
Emerald Insight	191	4	10,051	16,927	159
IOP Journals	61	14	31,800	2,925	9.1
Oxford Journals online	213	24	12,221	2,000	16.3
Royal Soc. of Chem. J.	28	7	25,690	9,496	36.9
SAGE online Journals	186	20	18,983	4,132	21.7
ScienceDirect	1,785	285	983,610	50,825	5.1
Springer Link	1,045	139	381,748	23,976	6.2
Taylor & Francis J.	1,092	67	98,580	14,800	15
Wiley Interscience	494	92	254,171	50,083	2
합 계	6,145	791	2,027,542	226,137	8.9

이렇게 자율적인 학술지 선정이 어려운 현행의 구독방식은 사서의 장서개발을 가로막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학술지 선정 요구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저널을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독금액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입을 통하여 791종의 저널을 구독 유지하면서 더불어 약 9%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5,343종의 저널을 이용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수 있지만, 이 또한 우리도서관에서 선정한 저널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저널이기에 실제 얼마나 효용을 가진 저널인지는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패키지 저널에 대한 이용분석을 통하여 실제 컨소시엄 저널의 이용도와 투자비용 효과 분석을 측정해보았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인쇄저널을 구독 유지해야 하는 유료 타이틀과 무료로 제공되는 타이틀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용도를 조사하여야 실제 구독비용을 지불하는 저널과 무료로 이용되는 저널의 객관적인 구독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용통계 제공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검증이 어려웠다.

아래 표는 우리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컨소시엄 저널 중 구독금액이 큰 일부 출판사의 패키지 저널 위주로 분석한 이용현황 분석 자료이다.

표를 통해 알수 있듯이 과학기술 계통의 저널 대부분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 위주로 구성된 CUP, Emerald, SAGE, Taylor & Francis 발행 저널들은 이용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널 1종당 연간 구독료 단가를 원화 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저널 건당 평균 이용료를 1만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연간 100건 이상을 이용하면 저널 구독시와 동일 한 효용을 가진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과학기술분야(ACS, AIP, IOP, ScienceDirect, Springer, Wiley 등)의 저널은 연간 100건이상 이용되는 학술지의 종수가 출판사의 의무 구독유지 학술지 종수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인 반면, 인문사회분야의 패키지는 인쇄저널을 구독할 경우보다 별다른 효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주로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로 구성된 출판사의 경우 굳이 컨소시엄을 통한 패키지형 구독이 적절한 방식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Web based Journal인 "Cities & Insights" Vol. 5, no.9(July/August 2005)의 "Predicting the Future of Academic Libraries"에서 Crawford는 학술도서관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견하였는데 "인문학과 사회학분야에서는 인쇄와 전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인쇄저널 구독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질 것이고 과학, 기술, 의학분야에서는 전자자료로의 전환이 가속 및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이 지금 우리도서관의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표 8] 2006년(1월-12월) 전자저널 논문 이용도(Download) 분석

Package(출판사)명	수록저널종	100회이상 이용(%)		10회미만 이용(%)	
		종수	전체대비	종수	전체대비
ACS online	37	36	97%	0	0%
AIP/APS online	41	26	63	6	14
Blackwell Synergy	736	28	3.8	395	53.7
©UP Journals online	205	23	11.2	137	66.8
Emerald Insight	191	21	11	73	38.2
Oxford Journals online	213	-	-	-	-
IOP Journals	61	31	50.8	0	0
Royal Soc. of Chem. J.	28	17	60.7	3	10.7
SAGE online Journals	186	27	14.5	-	-
ScienceDirect	1,785	812	47.5	285	16.6
Springer Link	1,045	242	23.1	169	16.1
Taylor & Francis J.	1,092	79	7.2	624	57.1
Wiley Interscience	494	184	37.2	25	5
합 계	6,114	1,626	26.6	1,727	28.2

III. 효율적인 학술지 구독 방안

1. 학술지 선정 및 평가

앞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구독하는 학술지는 부족하고 해마다 발행되는 학술지는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연속간행물은 20만종이 넘으며 그중 학술지는 약 6만종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학술지 중 대학에서 필요한 학술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물론 첫째는 연구자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다. 즉 신청하는 자료를 구입해주는 것이다. 연구자의 개인별 전공 주제분야가 제각각 다르고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학문의 다양역화는 학술지의 양적인 팽창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다양한 학술지를 구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학술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흔히 Peer reviewed 저널이라 불리는 학문 주제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저널은 현재 세계적으로 약 1만6천여종이 발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도서관 특히 우리도서관과 같은 연구도서관이라면 최소한 peer review 저널은 기본적으로 구독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구독해야 할 학술지는 쌓여있으니 매년 학술지 구독을 앞두고 학과로부터 신청 접수받은 저널에 대한 선정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최근 학술지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JCR(Journal Citation Report)을 통한 인용지수 측정 방법이 있다. 이는 JCR에 수록된 저널의 인용지수 순으로 주요 저널을 서열화하여 우선 구독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객관적이며 교과서적인 방법이다. 인용이 많이 된 학술지가 꼭 중요한 학술지이거나 해당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것만은 아닐 것이다. 특정 주제분야에 치우치거나 최근에 각광 받는 이슈인 경우 상대적으로 인용지수가 떨어질 것이며 특히 인문학 분야의 특성상 인용지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학과별 수요조사를 통한 학과별 학술지 선정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즉 학과별로 해당 주제 분야의 학술지 리스트를 작성하여 학과로 보내 중요도에 따라 학과에서 신청시 일정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학술지마다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될 것이며 고득점 학술지 순으로 간단히 선정 작업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학과별 신청에 따른 학술지 선정의 문제점은 해당 학과로 보내진 신청서가 모든 교수들의 의견을 끌고루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 교수나 공문을 접수한 교수 일부의 의견만으로 학술지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Serials Analysis등과 같은 학술지 분석툴을 이용한 과학적인 선정을 하는 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저널리스트를 입력하면 학술지 가격, 구독 기관, Impact Factor, 이용도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독 저널에 대한 자동 분석 작업을 통하여 주제별 취약하거나 과다 상황, 이용도의 높고 낮음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다.

마크웨어는 「ALPSP」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구독저널의 유지 및 취소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로 가격, 이용자들의 요구 감소, 이용정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외 중요한 요소로 Open Access Archive와 Aggregator를 통한 저널의 이용가능 여부, 그리고 저널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중요성, 학계의 인지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학술지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각각의 항목을 수치화하여 분석 및 평가 작업을 매

년 수행하여 항상 되풀이되는 단순한 구독 갱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수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과(주제)별 형평성있는 예산 배정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대학에서 구독하는 학술지는 <표 4>와 <표 5>를 통하여 알수 있듯이 특정 주제 분야에 치우쳐있거나 학과별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물론 학술지 구독업무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 자체 기준에 따른 학과별 배정 예산과 권장 기준이 있으며, 매년 학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학술지 선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과별로 배정하는 예산의 배정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 인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현행의 학과별 구성인원으로만 학술지 구독예산을 배정할 경우 주제분야별로 확연히 차이나는 학술지 구독단가, 실제 학술지 이용대상은 석박사 이상의 학생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을 산정함으로서의 불공평성, 학과별 학술지 발행종수의 차이에 따른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이 제외되어 커다란 모순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술지 구독 예산 배정은 이러한 학술지 시장의 환경적 요인과 이용대상의 세분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전자저널로의 대체에 따른 Archive 정책

British Library의 최고경영자인 린 브린들리(Lynne Brindley)는 BL의 '2020년 장서개발계획'을 얘기하면서 "2020년까지 영국 연구 논문의 40% 가량이 전자형태로만 이용 가능할 것이고 50%는 인쇄와 전자 두가지 형태로 출판될 것이며 새로운 타이틀의 10%만이 인쇄형태로만 이용될 수 있을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디지털 출판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도서관도 연속간행물 유형의 전자자료 구독비용이 최근 인쇄자료의 1/3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인쇄저널 총 구독종수 3,600여종에 비해 전자저널 종수는 12,000여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자저널에 대한 관리 및 보존(Archive) 정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전자저널 구독 조건이 매년 Access 조건으로 되어있어 당해연도 계약이 끝나고 차년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한 아무런 아카이브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도서관의 고유기능인 자료보존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다른 무엇보다 컨소시엄 구독 저널의 이용기간이 최근 연도에 한정된 문제점 또한 연구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거연도에 대한 구독 옵션이 전혀없다는 것은 과거 Back issue에 대한 새로운 수서정책의 필연성을 탄생시켰다.

Archive 확보를 위하여 우선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저널을 아카이브 할 것인지? 또한 인쇄저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저널로 할 것인지? 중앙도서관에서 대표해서 할 것인지 분관 성격의 자료는 분관에 맡길 것인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분관과의 협력 수서

중앙도서관과 분관간의 협력은 과거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컨소시엄을 통한 전자저널 구독시 부과되는 content fee(온라인 접속료)는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인쇄저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관이 구독하고 있는 인쇄저널까지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앙도서관에서 모든 분관을 대표하여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관에서 구독중인 학술지와 신규 구독 및 중단되는 학술지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분관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구독하고 있는 인쇄저널을 중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로 구독시 중복 구독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한쪽에서 구독 중단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요인을 감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저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저널과 달리 굳이 중앙과 분관이 각각 구독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학문 영역의 다영역화로 인한 주제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중앙과 분관간의 역할 규명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생명학 분야와 의학도서관, 농학도서관의 학술지는 상당부분 중복 구독의 여지가 있다. 경영분관과 사회과학분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경제/경영 분야, 기타 교육학, 화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분관의 협력 수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술지 협력수서에서 몇가지 전제를 가정해본다.

첫째, 중앙도서관과 분관 구독학술지의 주제분야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중앙과 분관 학술지가 상호 중복될 경우 가능한 중앙에서 구독 하도록 한다. 셋째, 2개 이상의 분관에 해당되는 복합 주제의 학술지는 가능한 중앙에서 구독하도록 한다. 넷째, 매년 학술지 구독 갱신시 중앙에서 우선 구독 예정 학술지를 발표한 후 분관은 중앙 구독 학술지와 중복 구독을 지양한다. 다섯째, 분관에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독할 시 사전에 중앙으로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구독토록 한다. 여섯째, 전자저널은 서울대학교 전 캠퍼스를 대상으로 계약하여 모든 기관에서 공유할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매년 학술지 구독 갱신 전 중앙과 모든 분관이 구독 예정인 학술지 리스트를 공유하여 상호 중복을 배제하고 상호 조정함으로써 학술지 구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OAJ(Open Access Journal)의 확충

최근 개방형 저널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으며 그 이용도도 증가하고 있다. OAI(Open Access Initiative)는 학술출판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술 및 연구저널에 대해 보통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개방형 저널이 약 3,500종에 달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저자와 출판사, 도서관에서 개방형 저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Open Access Journal에 대하여 알아본다.

①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 DOAJ는 주요 학술저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과학저널 및 학술저널을 전 세계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널의 이용율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DOAJ는 콘텐츠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티클의 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개방형 과학저널이나 학술저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언어나 주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DOAJ는 Lund University Library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Open Society Institute와 SPARC(The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DOAJ에는 1,882종의 저널이 포함되어 있다.

② BioMed Central : 독립적인 온라인 출판 공간으로 Peer-reviewed된 생물학과 의학 연구자료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으며, 연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과학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BioMed Central은 현재 130여종의 Open Access Journals(개방형 저널)을 발행하고 있으며 Reviews나 구독을 기반으로 한 저널도 발행하고 있다. BioMed Central에서 발행하는 주요 개방형 저널은 또한 높은 Impact Factor값으로도 유명하다.

③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 과학자와 내과외사의 비영리 조직으로 세계적인 과학, 의학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자들의 연구를 이용하고 읽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자와 의사들이 유명한 저널에 가장 중요한 연구를 출판할 수 있도록 비영리적인 과학, 의학 출판 사업을 시작했다.

PLoS의 첫번째 저널은 2003년 10월 발행된 "PLoS Biology"로 최근에는 처음으로 Impact Factor 13.9를 기록했는데, 이는 생명공학분야의 저널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저널 중 하나이며, PLoS Medicine, PLoS Computational Biology, PLoS Genetics는 과학자들과

의사들로부터 넓게 지지를 얻었고 국제적인 미디어에 의해서도 크게 다뤄졌다. 2005년 9월 PLoS Pathogens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PLoS Clinical Trials를 발행할 계획이다.

개방형 저널에 대한 대중성과 저자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많은 개방형 저널들이 Impact Factor 값을 갖게 되었다. 개방형 저널들이 전통적인 중요 저널과 경쟁하기에 그 후발주자들로서 어려움과 한계는 있을것이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개방형 저널들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우수성을 인정받고 대중성 마저 갖는다면 관련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저널을 위협하고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OAJ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학술지의 양적인 확충 효과와 경제적인 효율성을 동시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문헌복사서비스 비용의 지원

도서관에서 계속 구독해오던 학술지를 중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학과나 교수의 신청에 의한 학술지의 경우 그 이용률이 어떠한간에 구독 취소란 용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신청에 의한 구독 학술지라는 이유로 이용률이나 기타 여건을 무시하고 계속 구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거에는 학술지 관리의 객관적인 틀이 없었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해당 학술지의 인용도와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고 이용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모든 학술지를 이용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부 고가의 학술지의 경우 그 학술지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면 수배 또는 수십배의 다른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서관은 자관에 없는 자료를 외부에 문헌복사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경비를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개인의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자료는 '수요자 부담원칙'이라는 전제하에 문헌복사비용을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모든 자료 또한 특정수요자를 겨냥한 것이다. 교수가 신청한 학술지는 교수를 위해서, 학생이 신청한 단행본은 그 학생의 필요에 의해,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자료가 수요자의 신청에 의해 구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원하는 논문을 신청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이 또한 수요자의 신청이므로 구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개인의 논문을 위한 자료이든 연구를 위한 자료이든, 학습을 위한 자료이든 모든 자료는 특정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구입되고 있으며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도서관 상호대차 즉 문헌복사서비스 요금 또한 도서관에서 납부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외국 특히 미국 대부분의 대학은 매년 일정액의 DDS/ILL 비용을 책정하고 해당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최고의 자료를 갖춘 Harvard나 Yale 대학의 경우에도 매년 수만불에서 수십만불의 예산을 책정하여 부족한 자료의 원문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ARL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DDS/ILL 서비스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전자자원 플랫폼의 발달과 구글이나 다른 검색엔진의 발달로 이용자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더 깊고 많은 정보를 이용하게 되었고 둘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중요하게 판단한 컨소시엄 수서의 증가로 수서의 자유를 잃었고 도서관의 코어 저널이나 비 컨소시엄 타이틀이 구독 중지 되거나 새로운 저널을 구독할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문제공서비스는 중요한 도서관 서비스로 인식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심해질 것이다.

우리도서관에서도 원문복사서비스 요금을 도서관에서 지불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았으면 한다. 만약 연 3천만원의 예산을 문헌복사서비스 요금으로 책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비스 한다면 문헌복사 1건당 가격을 2만원 정도로 가정하였을 경우 연 1,500명이나 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겠지만 동일한 금액으로 1종당 연 평균 구독가격이 200만원 정도인 학술지 중 별 이용률이 없는 학술지 15종을 구독 취소하였을 경우의 이용자 효용도와 비교해본다면 과연 어느쪽이 이용자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다 중요한 사실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학술지를 구독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조금이나마 더 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문복사서비스의 무상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학술지 확충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VI. 끝맺는 말

다른 사족을 제쳐두고 어찌되었든 이제는 학술지 구독 업무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학술지 매체가 변하고 있고 이용자의 행태와 요구도 변하고 있으며 자료를 서비스하고 보존하는 도서관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과거 십수년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업무 시스템을 고집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외부의 요구와 자극이 쏟아지고 있다.

수동적인 수서가 아닌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수서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일부 학과의 요구에 의한 편향된 수서가 아닌 모든 학과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에 맞춰진 수서가 아니라 수서정책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수서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선정과 구독, 평가, 관리 등 각 단계마다 세심하게 정비된 기준과 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용자(교수 및 연구원)와의 적극적인 대화 창구가 마련되어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구독자원의 지속적인 분석과 평가 및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서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용자와 사서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그 신뢰는 도서관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사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도서관을 지지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 도서관이 대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이란주, 2005, 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pp.203-224.
- 이지연, 김성연, 2003, 디지털도서관의 웹자원 기반 장서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1): pp.111-128.
- 이하범, 2003. 5, 저널 수서정책을 위한 전자저널의 평가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8: pp.79-93.
- 류인석, 1992. 한국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과 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 pp.109-141.
- Brancolini, Kristine R. 2000. Selecting research collections for Digitation : Applying the Harvard Model. 『Library Trends』, 48(4): 783-798.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05. ARL Statistics 2004-05.